

# 성서에 나타난 제사장 복식의 상징적 의미

## The Symbolic Meaning of the Priestly Costume Depicted in the Bible

김 현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Kim, Hyun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the symbolic meaning of the priestly costume through the Bible. Based on corroborative the Bible, this thesis analyzes the costume of priest. This compares the two onyx stones on the shoulder pieces with four rows of precious stones on the breastpiece. This era falls on about from the 15th century before Christ. It was found that the breastpiece was a piece of the same multicolored linen as in the ephod, a span square when folded double. It symbolizes righteousness. It hung on the high priest's chest, supported by two golden chains attached to the shoulder clasps. It symbolizes love. On the breastpiece were twelve beautiful jewels, arranged in four rows of three jewels, each jewel symbolizing one of the tribes of Israel. The variety of jewels on the breastpiece suggests the variety of people. Urim is the Hebrew word for 'lights' and therefore would logically be associated with bright or white stones. Thummim is the Hebrew word for 'perfection'. The high priest's ephod was made of gold, and of blue, purple, and scarlet yarn, and of finely twisted linen. The golden yarn symbolizes faith. The robe of the ephod was made entirely of blue cloth. The blue color symbolizes an obligation and life. The robe of the ephod symbolizes calling and dignity. The woven tunic symbolizes holy duty.

**Key words** : the Bible, the priestly costume, the symbolic meaning

## I. 서론

복식은 그 시대의 문화를 표현<sup>1)</sup>하는 것이므로, 복식 안에는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상징을 포함하고 있다. 의복은 시각적 혹은 비언어적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의사 소통하는 “무언의 언어” 중의

하나<sup>2)</sup>이며, 자기, 역할 및 지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며, 지각되는 상황을 규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복 상징이 나타내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애련은 복식에 나타나는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식이 상징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sup>3)</sup> 민동원은 의복의 구매와 사용의 경우, 생활양식과 기호의 다양성 및 의복의 가치성으로 인하여 의복의 표현적 기능 즉 상징적 의미가 중요시되고 있다고 하였다.<sup>4)</sup> 카이저(Kaiser)는 의복 상징은 많은 다른 형태의 인간 행위보다 더 명확

---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임.

Corresponding author: Kim, Hyun

Tel: 041) 850-8304 Fax: 041) 855-7455

E-mail: hyunkim@kongju.ac.kr

하고 시각적이지만 의복 상징에 부여된 의미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복식에 있어서 상징의 가시성과 전달적 가치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sup>5)</sup> 이와 같이 복식에서의 상징적 의미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관없이 대다수의 인간의 삶 속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딘(Hardin)에 의하면, 예전 예술은 전통적인 기독교 상징을 사용하고, 공동적 성격을 지니며, 종교적 힘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sup>6)</sup> 틸리히(Tillich)는 상징적 언어만이 궁극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궁극적 관심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했다.<sup>7)</sup> 상징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서 궁극적 의미를 표현하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쉐퍼(Schaeffer)는 이제 인간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상실한 문화의 회복을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역순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문화를 통해 방향을 잃은 이 시대인들이 삶의 본질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sup>8)</sup>

놀라운 과학 기술의 발전은 전 인류를 지구촌의 한 성원으로 좁혀 놓았다. 이러한 시대에는 나눔의 문화, 섬김의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가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즉 정보화 시대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나눔의 온정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바로 이 시대가 사랑<sup>9)</sup>의 시대여야 한다는 것이다. 들에 새겨진 형태로 성계 속에 넣어 가지고 다녔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은, 그것이 생명을 보호하고 성스러운 것을 지켜주는 법이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귀중한 물품 중의 하나로 아직까지 남아있다.<sup>10)</sup>

대제사장이 착용한 복식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계시로 만든 단 한 벌의 복식이며, 사명의 복식이며, 존귀와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복식이다.<sup>11)</sup>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인 제사장 복식의 상징적 의미를 연구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성서에 나타난 제사장의 복식을 성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복식의 색채, 형태, 세부 장식, 착용법과 상징적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서 중에서 제사장의 복식에 관하여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제사장의 복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사장의 복식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색채, 형태, 세부 장식, 착용법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성서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제사장 복식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예브 견대의 보석과 흉패 위의 열 두 보석과 사람의 성격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그 보석의 색채와 상징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제사장 복식의 이론적 고찰에 있어서의 연구 범위는 성서의 제사장의 복식에 관한 기록 중에서 가장 잘 표현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성서에 나타난 제사장의 복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출애굽 연대에 대한 학설 중 초기설(B.C. 1445 년경)을 취하며, 40 년 광야 생활 동안, 즉 B.C. 1445 년부터 B.C. 1405년까지의 출애굽 광야 생활 40 년 동안의 제사장의 복식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그 상징적 의미와 해석은 전반적인 성서의 기록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성서에 나타나는 제사장의 복식을 고찰하기 위하여 제사장 복식에 대한 문헌 자료로 출애굽기를 포함한 성서를 토대로 문헌을 분석하고자 한다. 성서에 나타난 제사장 복식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색채, 형태, 세부 장식, 착용법 등을 고찰하여 제사장 복식의 특징적 면모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견대와 흉패에 나타난 보석의 상징성을 흉패의 열 두 보석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을 사람의 성격과 보석의 특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창세기를 중심으로 그들의 출생, 야곱의 축복과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축복 사이에 있는 상호 관련성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제사장 복식에 나타난 색채의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고 제사장 복식에 나타난 보석과 색채의 상징성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상징의 해석 방식은 엘리야데가 주장하는 종교적 입장의 시각에서의 상징<sup>12)</sup>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성서에 나타난 제사장 복식의 상징적 의미를 분

석하기 위하여, 복식의 상징성, 기독교와 상징적 의미, 성서와 복식, 제사장과 제사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상징(symbol)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symbolon (함께 혼합된 것이나 식별 기호라는 의미)에서 유래하며 일반적인 의미로는 기호로서 고정되거나 의미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복식과 그 밖의 외모 형태는, 그것들이 착용자 자체나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그가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지각자에게 제시하거나 그 정보를 제공할 때 상징적인 것이 된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역사를 주관하는 자임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는 역사적 백성을 만들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백성의 삶을 다스리는 방법의 하나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문화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였다.<sup>13)</sup>

기독교 예술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다는 데 있다. 이 닮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믿는 자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예술가들은 이를 형상화한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나 사도들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표정에서 밖에는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 예수가 행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궁극적 표현이 기독교 예술에 있는 것이다.<sup>14)</sup>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계시할 때, 구체적인 인물들을 택해서, 그들의 삶과 언어를 통해 역사한다.<sup>15)</sup>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며”,<sup>16)</sup>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러나 문자란 의미 전달을 위한 상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문자의 배후에 있는 심오한 뜻을 찾고 해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성서의 해석에 있어서는 고대 텍스트와 현대 해석자 모두의 지평들을 뛰어 넘어설 수 있는 자리를 발견하여 거기에서부터 초역사적이고 초문화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sup>17)</sup> 성서의 큰 주제는 역사 안에서 인간에게 접근한 하나님의 활동이며, 하나님의 활동은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에서 절정을 이룬다.

제사장의 복식을 착용하도록 위임된 사람들, 즉 아론의 반차(班次)를 따르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세 종류의 용어들이 있다. 그것은 “제사장”, “대제사장”, “대대제사장”이다. 제사장들은 아론 족속의 지체들로서 오직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으며, 그 숫자는 아론 족속의 규모에 따라 변했다. 그들의 직무는 거룩한 것들을 섬기는 것이었다. 처음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 그의 아들이 그 직분을 계승했으며, 대제사장 직분은 오직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취할 수 있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른 것은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려 함이었다.<sup>18)</sup> 또한 제사장은 율법을 맡은 자로서 선지자적 기능을 수행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의무가 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모든 지시를 순종해야만 했으며,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후 갖게 된 성막 제사는 제사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기점을 이루었다. 예전 절차는 이방인으로 인해 오염된 제사 형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절차를 세우게 해 주었다. 이 때부터 노예 생활 속에서 무질서했던 여호와의 향한 독특한 제사 형태가 쇠신되어 가는 구체적 발전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sup>19)</sup> 대대제사장 직분은 오직 단 한 사람밖에 취할 수가 없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sup>20)</sup>

멜기세덱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원조라면 예수는 인류를 위한 제사장이다. 또한 예수가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다른 점은 그가 제사장인 동시에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된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의미는 예수를 지칭하며 구약 시대의 제사장 복식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궁극적으로 예수를 표상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사장 복식의 연구는 그 시대에 있어서 역할 기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대를 초월한 의미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 Ⅲ. 성서에 나타난 제사장 복식과 상징적 의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였다. 대제사장은 예복으로 제일 밑에 고의, 반포 속옷, 즉 수 놓은 옷을 입고 그 위에는 에봇 받침 겹옷, 에봇을 입고, 가슴에는 흉패를 붙이고, 허리에는 대를 띠고, 머리에는 관을 썼다. 제사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거룩한 복식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었다.<sup>21)</sup>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기 28<sup>4)</sup>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겹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sup>22)</sup>

흉패에는 열 두 보석을 붙였고, 열 두 보석에는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 각각 새겨졌다.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가로 세 개씩 세로 네 줄로 배치했다. 히브리어의 서식을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배치된 것으로 본다. 이 보석의 배치는 하나님의 질서, 통일성,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

#### 1. 우림(Urim)과 둠뫼(Thummim)이 들어 있는 흉패 (breastpiece)

##### 1) 흉패(breastpiece)

이 에봇은 거룩한 옷이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는다. 두 개의 견대를 만들어 에봇의 앞판과 뒷판

의 양쪽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한다.<sup>23)</sup> 호마노 두 개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연령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인을 새김같이 새겨 금테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인다. 금으로 테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땀고 그 땀은 사슬을 그 테에 단다.

판결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의 이름을 새긴 열 두 보석이 물려있으며, 그것은 에봇과 분리할 수 없다. 흉패 위에 기록된 지파의 순서에는 하나님이 정한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Sinai) 광야에서 처음으로 이동할 때 주어졌다.<sup>24)</sup> 이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리를 정하였으며,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상징한다. 흉패는 에봇에서 떨어질 수 없도록 연결시켰다. 에봇은 흉패를 위해서 만들어졌으나, 흉패는 에봇을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았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이다. 판결 흉패는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반드시 네모 반듯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공의를 상징한다. 열 두 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안았다. 이것은 사랑을 상징한다.

#### 2) 우림과 둠뫼

우림과 둠뫼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한다. 우림이란 히브리어로 '빛'에 해당하는 말이며,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밝은 색이나 흰색 등과 연관되었을 것이다.<sup>25)</sup> 둠뫼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판결은 완전하여 아무도 그것을 부결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sup>26)</sup>

#### 2. 에봇(ephod)

흉패를 만들 때 보석을 받쳐 주는 금판이 필요하고, 금고리, 금사슬이 장식되어 들어가므로 금이 이용된다. 그리고 에봇과 에봇 위에 매는 대를 만들 때, 모두 금실이 들어 가고 금으로 테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곳들에 모두 금색이 사용된다. 금색은 신성,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영원을 상징한다.

흉패와 에봇, 에봇 위에 매는 대를 만들 때 자색실이 사용된다. 자색은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됨을 나타내고 있다. 흉패와 에봇, 에봇 위에

매는 대를 만들 때 홍색실이 사용된다.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인성, 변영과 부귀, 죄를 상징하는 색으로 쓰여졌다.

에봇에는 흉패가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흉패 위에는 보석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영화로운 겹옷 전부를 벗지 않고는 보석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제거할 수 없었다. 제사장이 입고 있는 자신의 제사장 의복 전부를 벗지 않고서는 자기 가슴에서 이름 하나라도 제거할 수 없었듯이 예수도 자기 영광을 벗지 않고서는 믿는 자의 이름을 제거할 수 없다. 믿는 자는 예수에게 결코 잊혀지거나 저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 3. 에봇 반침 겹옷(robe)

에봇 반침 겹옷에 나타난 청색의 상징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신성과 은혜, 영원성, 생명을 들 수 있다. 겹옷은 소매가 없으며,<sup>27)</sup> 범의(chape, 法衣)의 한 종류로 장단지까지 내려온다. 둥근 케이프(cape)처럼 사용했다. 에봇 반침 겹옷은 직분과 권위를 상징한다. Haldeman은 겹옷은 위치의 상징이며, 직분과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sup>28)</sup>

### 4. 반포 속옷(woven tunic)

조신현은 대제사장의 속옷은 바둑 무늬가 있으며 겹옷 아래 입는 속옷이며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에봇 반침 겹옷을 입지 않고 속옷만을 입는다고 하였다. 또한 제사장은 바둑 무늬가 없는 속옷만을 예복(겹옷)으로 입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sup>29)</sup>

반포 속옷은 성결한 중보적 직무와 의를 상징한다. 반포 속옷은 베로 된 긴 옷으로 백색이다. 백색은 부활, 의, 순결을 의미한다.<sup>30)</sup>

### 5. 관(turban)

관은 보자기 같은 것으로 “싸진 것”이라는 뜻이니<sup>31)</sup> 그 모양은 분명히 알 수 없다. 최규복은 그것은

일종의 터어번 같은 것이며 색은 회다고 했다.<sup>32)</sup>

박찬부는 제사장은 ‘가는 배관’을 썼으며, 차니프는 왕과 제사장이 사용하고 미즈네프은 대제사장이 쓰는 아마포로 된 머리 수건인데 이것은 속죄일에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품목 중의 하나이며, 미그빠아드는 일반 제사장들이 썼던 두건이라고 했다.<sup>33)</sup>

민동원은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음<sup>34)</sup>은 그 기호로 말미암아 죄건을 속하여 열납되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대제사장의 가장 우선은 성결이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대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씻음 받아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sup>35)</sup>

### 6. 대(sash)

대제사장의 에봇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에봇 위에 둘러서 맨 에봇위에 매는 대<sup>36)</sup>는 에봇 만드는 데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와 에봇 만드는 법대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에 붙여 공교히 짜서 만든다. 김진구는 아론의 대는 수(繡) 놓은 물품이라고 했다.<sup>37)</sup> 에봇 위에 매는 대는 권능, 공의와 성실을 상징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이사야 11<sup>5)</sup>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대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자의 힘의 표시로도 나타난다. 오춘자와 박길순은 대를 띤 여호와가 세상에 질서를 유지하고 위엄있고 권위있는 왕의 복장으로 나타난다고 했다.<sup>38)</sup> 네 가지 색채를 근거로 한 대는 믿음, 생명, 왕권, 고난을 상징한다. 대제사장의 속죄제(贖罪祭)를 위한 복식 구조를 보면 대를 속옷에 매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39)</sup> 또한 대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봉사의 거룩함을 의미한다.

### 7. 고의(undergarments)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정숙해야 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sup>40)</sup> 고의는 단정과 경건을 상징한다. 레위기 6<sup>8-10)</sup>의 기록에 의

하면 대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에는 세마포 고의를 입어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해야 했다. 예배와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규정한 방법에 따라서 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맞게 된다.

그림 1은 성서에 나타난 제사장의 복식을 표현한 그림이다. 소매가 없으며 흉패의 보석의 색을 추정하여 본 연구자가 모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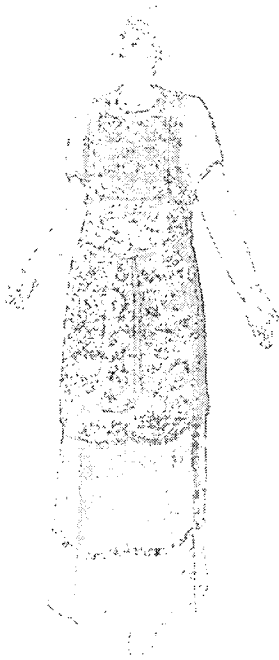


그림 1. 제사장의 복식

출처 :

C. W. Stemmig, 김병희·장세학 옮김, 제사장 의복, 서울: 전도출판사, 1992, 표지;  
유송옥, 복식의장학, 서울: 수학사, 2002, p.307;  
한영해설성경 편집위원회 권혁달 편, 한영해설성경, 서울: 한영성경협회, 1999, 출애굽기 28: 1-30, pp.124-125; A. Buruma, Fashions of the Past, London: Collins and Brown, 1999, p.20 등을 참고하여 겉옷의 소매가 없도록 본 연구자가 모사함

그림 2는 제사장 복식의 형태를 표현한 그림이다.<sup>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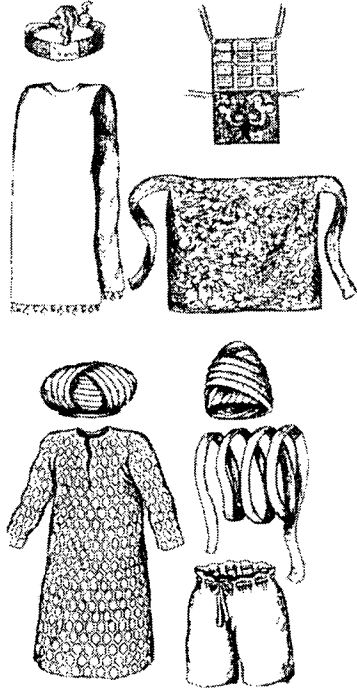


그림 2. 제사장 복식의 형태

출처 :

강문호, 성막으로 성경을 말한다, 서울: 한 국가능력개발원, 1999, p.246.

#### IV. 제사장 복식의 견대와 흉패에 나타난 보석의 상징성

##### 1. 제사장 복식의 견대에 나타난 보석의 상징성

제사장 복식 중에서 가장 겉에 있는 에봇의 양쪽 어깨 위에는 견대가 있다. 이 견대 위에는 호마노(縞瑪瑙)가 금테에 물려 있다. 이 호마노 두 개 위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그들의 출생 순위대로 오른쪽 견대 위의 호마노 위에 장자부터 여섯 번째 아들까지의 이름을, 일곱 번째 아들부터 열 두 번째 아들까지 나머지 여섯 이름은 왼쪽 견대 위의 호마노 위에 도장을 새김같이 새겨 금테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아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한다. 이것은 어깨 위에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호마노의 히브리 명칭은 '아브네 쇼함'이다.

'아브네'의 원형 '에벤'은 직역하면 '돌'이다. 그러나 '광석', '보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쇼함'은 '마노'를 의미한다. 그러나 '마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70인역은 '에메랄드'로, KJV는 '얼룩마노(onyx)'라고 번역하였다.<sup>42)</sup> 또한 호마노는 유백색의 띠와 검은 색의 띠가 교대로 있는 옥수 형태의 보석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43)</sup> 그러나 요세푸스<sup>44)</sup>에 의하면 '호마노'는 붉은 줄무늬가 있는 홍옥수라는 보석으로 여겨지는데 공동 번역이 이 전승을 따르고 있다. 호마노는 고급 인장 반지와 아주 값비싼 도장의 재료로 이용되었다.

표 1.은 견대에 부착된 보석의 명칭과 색채, 그리고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sup>45)</sup>

견대 호마노는 유백색의 띠와 검은 색의 띠가 교대로 있는 옥수 형태의 보석 또는 붉은 줄무늬가 있는 홍옥수의 보석으로서 민족<sup>46)</sup>을 영화롭게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 2. 제사장 복식의 흉패에 나타난 보석의 상징성

제사장 복식 중에서 가장 곁에 입는 옷인 에봇 위에는 흉패가 있다. 이 흉패 위에는 열 두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 위에는 열 두 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다. 열 두 보석은 한 줄에 세 개씩 네 줄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구약 성서 출애굽기 28<sup>17-21</sup>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에 사람의 성격과 보석의 특성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또한 그들의 출생 배경과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축복, 그리고 그들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과도 상호 연관이 있다.

### 1) 유다와 홍보석(ruby)

유다를 상징하는 홍보석은 흉패의 첫째 줄 첫째 위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히브리어로 '오템(Odem)'에서 나온 말인데 '아주 붉고 풍성하다'라는 뜻이

다. 홍보석 위에 새겨진 유다의 성격과 홍보석의 색채나 특성은 일치하고 있다.

창세기 49<sup>11</sup>에 의하면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랴"라고 기록되어 있다. 포도주와 포도즙의 붉은 색은 홍보석의 색채와 상관관계의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일에 풍성함을 나타내는데 유다의 삶의 풍성함, 유다를 향한 풍성한 축복과 홍보석의 풍성한 이미지는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이유는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붉은 홍보석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기시킨다.

창세기 49<sup>8-12</sup>에는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그 기록에서 보면 유다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찬송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에서 손으로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원수에 대한 정복과 승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라는 축복의 내용은 유다가 왕족 지파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지파를 통하여 나옴으로써 성취되었다.

홍보석(紅寶石)은 '오템(Odem)'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연유되었는데 그 어원은 '붉다'는 뜻을 가진 '아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붉은 색을 띠는 보석 즉 홍옥(紅玉)으로 추정된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를 '홍옥(NIV · Sprl, ruby)'으로, 공동 번역은 '홍옥수(KJV · RSV · Rhm, sardius)'라 번역하였다.

흉패 위의 홍보석은 적색의 보석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 인성(人性), 왕권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 2) 잇사갈과 황옥(topaz)

황옥(topaz)은 예로부터 미, 지혜, 장수를 상징해 왔으며, 황옥은 '계속해서 찾는다'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뜻의 황옥과 잇사갈의 이름은 일치하는데 잇사갈은 값을 지불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상', '대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창세기 49<sup>14-15</sup>에는 잇사갈에 대한 야곱의 축복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그 기록에서 보면 잇사갈은 나귀에 비유되고 있다. 나귀는 지혜롭기도 하고

잘 길들여지면 충성스러운 동물이기도 하다. 모세는 스블론은 나가서 일하는 지파이며 잇사갈은 장막 안에서 일하는 지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홍패 위의 황옥은 황금색을 띤 보석으로서 보상, 상급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 3) 스블론과 녹주옥(emerald)

녹주옥 위에는 스블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녹주옥에 대한 히브리어는 '바레케트'이며 이 용어는 반짝 반짝 빛난다는 뜻으로 '번개' 또는 '섬광'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히브리어 어원에서 유래되었다. 고대 보석 사전에 의하면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사용되던 이 보석은 등대 불빛과 같은 보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등대 불빛은 뱃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빛이며 폭풍 속에 시달린 여행자에게는 위로의 불빛이다.

홍패 위의 녹주옥은 녹색의 보석으로서 함께 함, 위로의 불빛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 4) 르우벤과 석류석(turquoise)

'석류석'으로 번역된 '노페크'는 번쩍거리는 물체를 가리킬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따라서 원어상으로는 이 보석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KJV는 이것을 '에메랄드(emerald)'로 번역하였다. 에메랄드의 색상은 해록색(海綠色)이다. 석류석은 르우벤의 생애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르우벤은 바다의 불규칙한 파도와 같이 불안정한 인생이었다. 그는 장자로 태어났으나 범 죄하였기 때문에 장자권은 요셉에게, 왕권은 유다에게, 대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빼앗겼다. 그는 감격적으로 태어났으나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므로 야곱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 주었다. 장자권에 해당되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아들이라는 신분만 남게 된 르우벤의 상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마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고 말한다.

홍패 위의 석류석은 해록색의 보석으로서 동료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 5) 시므온과 남보석(sapphire)

남보석에 대한 히브리어는 '싸피르'이며, 그 뜻은 '굵거나 문지르다', '자르거나 나눈다'라는 의미

를 지닌다. 그리고 이 보석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단단한 보석이다. 남보석은 강하지만 쉽게 갈라지고 한 번 갈라지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특성이 있다. 시므온의 성격은 무자비하여 잔해하는 기계와 같았다. 시므온의 여동생 디나가 하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복수심의 발로로 시므온과 레위가 공모하여 세겔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약탈하는 잔인성을 나타냈다는 점은 시므온의 그러한 성격으로부터 나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sup>47)</sup>

홍패 위의 남보석은 남색의 보석으로서 자름, 나눔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 6) 갓과 홍마노(diamond)

홍마노(diamond)는 갓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으로서 꿰뚫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하다.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유리나 다른 보석을 자를 수 있고 자신은 전혀 상하지 않고도 다른 것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수 있다. 또한 홍마노는 고귀한 보석이다. 에스겔 3<sup>9</sup>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 이마로 화석(火石)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sup>48)</sup>라고 했다.

창세기 49<sup>19</sup>에는 갓에 대한 야곱의 축복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그 기록은 처음에는 적에게 공격을 받으나 나중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다.

홍패 위의 홍마노는 무색의 보석으로서 백성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강한 능력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 7) 에브라임과 호박(jacinth)

호박은 에브라임을 상징하는 보석이며, 호박으로 번역된 '레셀'을 Lam과 Tor에서는 '풍신자석(風信子石, jacinth)'이라고 번역했다. 이동원은 이 보석은 깎기가 대단히 어려워져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서 깎아야 하며, 또한 깎고 다듬을수록 더 아름다운 광채를 발한다고 했다. 또한 이 보석의 색상은 황금색이며 대단히 화려하다고 했다.<sup>49)</sup>

또한 야곱은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 이제 기도드리오니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sup>50</sup>) 라고 축복했다.

호박은 에브라임의 이름이 새겨진 홍패의 보석이지만 그것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주석가들마다 이 보석이 무엇인가에 대해 상당히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대개는 그것이 오늘날의 히아신드석(jacinth) 또는 황색 지르곤(yellow jargon)이라고 한다. 그 보석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확실함이 어느 누구든 그에 대한 어떤 영적인 적용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다.

홍패 위의 호박은 황색의 보석으로서 고난 후의 창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 8) 므낫세와 백마노(agate)

백마노로 번역된 ‘쇄부’는 ‘타오르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일종의 차돌로서 광택이 매우 아름답다. 백마노 위에는 므낫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보석은 강철보다 강하여 잘 깨어지지 않으며 녹슬지 않는 보석이다. 이 돌들은 고대 중동 지방의 시실리(Sicily)라는 섬에 있는 아카테스(Achates)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유래된 것이다. 이 보석은 여러 가지 색상으로 조화를 이루며<sup>51</sup>) 반투명이며 복합적인 광물질로 되어 있다. 채석한 상태만으로는 대단히 거칠고 험해서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잘라서 갈고 다듬을수록 더욱 아름답고 다채로운 빛깔을 나타내는 귀한 보석이다. 이동원은 백마노는 므낫세 지파의 역사적 운명을 상징하는데, 처음 자기에게 당연히 돌아와야 할 갑절의 축복이 동생에게 돌아갔으나, 이 사실을 질투하지 않고 더 커다란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앞에 자신을 맡기면서 자신의 주어진 삶에 충실할 줄 알았던 이 지파는 역사가 흘러 갈수록 더 많이 번성하면서 요단 강을 중심으로 좌우편으로 힘있게 뻗어나가 더 많은 광채를 발했으며, 후일에 이 지파는 위대한 용사를 많이 배출한 지파가 되었다고 했다. 야곱을 모든 환난에서 건진 사자(The Angel)는 주님이다. 브니엘에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던 사자가 바로 그 분이다. 그 사자는 간교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었고 그렇게 함으로 야곱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한 것이다. ‘내게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사자께서 이 아이에

게도 복을 주시기를’ ‘인생의 모든 악과 삶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야곱은 간구했다. 그의 손자들 아니 오히려 그의 양자들에게 ‘그 자손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는 말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다. 이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이루게 되었고 함께 72,700명으로 유다 다음으로 큰 수를 이루었으며, 그들은 ‘지구의 가운데인’ 팔레스타인의 중심부에 뻗어있게 되었다.<sup>52</sup>) 정사라는 백마노의 이름의 뜻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홍패 위의 백마노는 반투명한 백색의 보석으로서 아가페적인 사랑, 잊어버림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 9) 베냐민과 자수정(amethyst)

자수정(紫水晶)으로 번역된 ‘아흐라마’는 ‘꿈을 꾸다’는 뜻을 가진 ‘할람’에서 유래하여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아름다운 보석을 의미한다. 대개의 영어 성서들이 한글 개역 성서와 동일하게 자수정(KJ V · Mof, amethyst)으로 번역하였다. 자수정은 구하기 힘든 희귀한 보석이며, 만드는 과정이 매우 어려우나 일단 만들어지면 귀한 보석이 되는 것이 특성이다.

고대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자수정은 진한 포도주색을 연상시키며 베냐민 지파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야곱의 막내 아들로 요셉의 친동생이다. 그의 출생지는 에브라임 부근<sup>53</sup>)이라고도 하며 밧단 아람이라고도 한다.<sup>54</sup>) 구하기 힘들고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자수정은 베냐민의 출생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라헬은 베냐민의 출생을 위해서 죽는 대가를 치루었다.

홍패 위의 자수정은 자색의 보석으로서 믿음, 희생, 희생의 대가, 지나친 간구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 10) 단과 녹보석(chrysolite)

녹보석은 매우 단단한 보석이며, 히브리어로 ‘타르쉬쉬’라 불리운다. 이 보석은 ‘깨뜨리거나 정복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강문호는 녹보석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보석인데 그 하나는 정복자를 상징하며 또 하나는 파괴자를 상징한다고 했다.<sup>55</sup>)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편인 군사들의 가슴에

승리의 표시로 이 녹보석을 달았다. 그러나 이 보석을 패배자의 측면에서 보면 파괴자의 보석이기도 했다.

홍패 위의 녹보석은 약간의 금빛을 띤 녹색 보석으로서 파괴자, 정복자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11) 아셀과 호마노(onyx)

아셀 지파를 상징하는 호마노는 히브리어로 '쇼함'이라고 불리운다. 호마노는 '얼룩마노' 혹은 '줄마노'를 가리키며 줄이 진 옥수와 같은 보석으로 금이나 청옥만큼 값비싸며 밝은 색채의 보석이다. 지병구는 호마노는 '불같은 영광으로 빛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고 했다. 번쩍이는 광채와 아셀 지파의 영광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볼 때 호마노는 아셀 지파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정사라는 호마노의 뜻은 '불꽃'이라고 했다. 불꽃이 번쩍인다는 의미로서 고대의 히브리 민족에게 발견된 호마노의 특징은 반사가 잘 되며 영광과 축복을 상징하는 보석이다.<sup>56)</sup> 또한 그 색상은

진한 붉은 색상이다. 이러한 호마노의 특징은 곡물과도 같이 풍성한 이미지의 아셀 지파와 잘 부합된다.

홍패 위의 호마노는 진한 적색 또는 밝은 연녹색 보석으로서 영광, 축복, 행복, 기쁨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12) 납달리와 벽옥(jasper)

납달리를 상징하는 벽옥은 히브리어로 '야쉐페'라고 불리우는 보석이다. '야쉐페'는 '광을 내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슬레밍(Slemming)은 벽옥은 많은 색채를 띠고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황색이며 그 밖에 심홍색, 빨강, 주홍, 초록, 여러가지 갈색들로 나타나며, 어떤 돌은 초록색 바탕 위에 빨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혈석(blood stone)이고, 또 어떤 돌은 투명하고 어떤 것은 불투명한데 그 홍패 위의 보석은 아주 투명한 것일 거라고 했다. 요한계시록 4<sup>3</sup>에 보면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있는데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했다.

창세기 49<sup>21</sup>에는 납달리를 위한 야곱의 축복이 잘 나타나 있다. 납달리로 비유된 암사슴은 한 번

표 1. 건대와 홍패의 보석의 색채와 상징적 의미

보석의 종류		색채와 상징적 의미	색채	상징적 의미
건대의 보석	우	호마노	유백색의 띠와 검은 색의 띠가 교대로 있는 옥수 형태의 보석, 붉은 줄무늬가 있는 홍옥수	민족을 영화롭게 함
	좌			
홍패의 보석	1	홍보석	적색	그리스도의 보혈, 인성(人性), 왕권
		황옥	황금색	보상, 상급
		녹주옥	녹색	함께 함, 위로의 불빛
	2	석류석	해록색	동요
		남보석	남색	자름, 나눔
		홍마노	무색	백성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강한 능력
	3	호박	황색	고난 후의 창성
		백마노	반투명한 백색	아가페적인 사랑, 잊어 버림
		지수정	자색	믿음, 희생, 희생의 대가, 지나친 간구
	4	녹보석	금빛을 띤 녹색	파괴자, 정복자
호마노		진한 적색, 밝은 연녹색	영광, 축복, 행복, 기쁨	
벽옥		황색, 심홍색, 적색, 주홍, 초록, 여러 가지 갈색, 초록색 바탕 위에 부분적인 적색	자유, 고상함, 사랑	

출처: 김호용 편, 한영성경전서, 개역한글판 New International Version,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pp.124-126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함

뛰면 높은 바위의 험한 지대까지 올라가 그 대적들이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곳에 머무른다. 이동원은 암사슴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자유를 상징할 때 쓰여진다고 했다. 또한 그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였다. 그리고 암사슴은 고상함과 사랑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다.<sup>57)</sup>

홍패 위의 벽옥은 가장 혼한 것은 황색이며 그 밖에 심홍색, 적색, 주홍, 초록, 여러 가지 갈색, 초록색 바탕 위에 부분적인 적색의 보석으로서 자유, 고상함, 사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표 1.은 견대와 홍패의 보석의 색채와 상징적 의미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성서에 나타난 제사장의 복식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색채, 형태, 세부 장식, 착용법 등을 파악하고, 제사장 복식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함이다. 또한 예복 견대의 보석과 홍패 위의 열 두 보석과 사람의 성격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그 보석의 색채와 상징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함이다.

대제사장은 예복으로 고의 위에 반포 속옷과 예복 받침 겹옷, 예복을 입고 가슴에는 홍패를 붙이고, 허리에 대를 띠고, 머리에 관을 쓰고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정금패를 달았다.

견대와 홍패에 나타난 보석의 색채와 상징적 의미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견대 호마노는 유백색의 띠와 검은 색의 띠가 교대로 있는 옥수 형태의 보석 또는 붉은 줄무늬가 있는 홍옥수의 보석으로서 민족을 영화롭게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홍패 위의 홍보석은 적색의 보석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 인성(人性), 왕권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황옥은 황금색을 띤 보석으로서 보상, 상급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녹주옥은 녹색의 보석으로서 함께 함, 위로의 불빛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석류석은 해록색의 보석으로서 동요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남보석은 남색의 보석으로서 자

람, 나눔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홍마노는 무색의 보석으로서 백성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강한 능력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호박은 황색의 보석으로서 고난 후의 창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백마노는 반투명한 백색의 보석으로서 아가페적인 사랑, 잊어 버림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자수정은 자색의 보석으로서 믿음, 희생, 희생의 대가, 지나친 간구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녹보석은 약간의 금빛을 띤 녹색의 보석으로서 파괴자, 정복자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홍패 위의 호마노는 진한 적색 또는 밝은 연녹색 보석으로서 영광, 축복, 행복, 기쁨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벽옥은 가장 혼한 것은 황색이며 그 밖에 심홍색, 적색, 주홍, 초록, 여러 가지 갈색, 초록색 바탕 위에 부분적인 적색의 보석으로서 자유, 고상함, 사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사장 복식의 색채, 형태, 세부 장식, 착용법은 질서정연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제사장 복식의 상징적 의미는 부름받은 소명에 따라 역할이 다르며 그 역할을 발견하여 맡은 바 소명에 충실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직분에는 권위가 뒤따르며 성실하고 단정하며 경건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봉사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두 번째로 견대와 홍패의 보석도 단순히 장식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출생 순위에 따라 그리고 특성에 따라 역할의 상징성이 모두 다르게 구별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제사장 복식 전반에 나타난 색채는 그 나름대로의 깊은 의미를 지니며 제사장 복식의 신성(금색), 은혜(청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증보자 됨(자색), 그러나 인간 예수의 고난(홍색)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백색)이 갖는 승리를 표상함으로써 진정한 지도자가 지향해 나아가 할 이정표를 색채 속에 함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한다.

주제어: 성서, 제사장 복식, 상징적 의미

## 참고문헌

1. 유송옥(1971). 서양복식사. 서울: 서울문화사, 1.
2. Hall, Edward(1959). *The Silent Language*. Garden City, N.Y.: Doubleday, Cited by Horn, Marilyn J., Gurel, Lois M.(1981). *The Second Skin*. Third Edi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58.
3. 김애련(2001). 전통설화에 나타나는 복식상징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i.
4. 민동원(1999). 의복의 상징적 소비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학 박사학위논문, i.
5. Kaiser, Susan 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김순심 외 3인 역. 김진구 감수 (1995).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경춘사, 182.
6. Hardin, H. Grady, Quilliar, Joseph D. and White, James F.(1964). *The Celebration of the Gospel*. Nashville and New York: Abingdon Press, 147, 149(박은규(1993). 예배의 재구성.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7-28에서 인용).
7. Tillich, Paul(1957). *Dynamics of Faith*.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41.
8. 임도건(1995). 기독교 문화와 프란시스 웨퍼. 서울: 도서출판 은성, 5-6.
9. Lee, Sung-Goo. *The Search for the New Professional Ethics in Developing Countries*. Professionalism and Standards of Conduct in Public Administration. ASPA National Conference. Honolulu, Hawaii, 11.
10. 이성구(2002). 민족통일론. 서울: 법문사, 18-20.
11. 김영은(2001). 성막은 예수&하나님. 서울: 도서출판 새봄, 240.
12. Eliade, Mircea. *Images et Symboles*, 이재실 옮김(1998). 이미지와 상징. 서울: 까치글방, 176.
13. Webber, Robert E.. *The Secular Saint*. 이승구 옮김(1998). 기독교 문화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2, 55.
14. 이상열(2002). 예술과 신학. 서울: 도서출판 한글, 156, 163-165.
15. 강영선(2001). 성서 이야기 한마당.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3-15.
16. Pfeiffer, Charles F. and Harrison, Everett F.(Eds.)(1990).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388.
17. Larkin, William J., Jr.. *Culture and Biblical Hermeneutics*. 정득실 옮김(2000). 문화와 성경해석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4.
18. 임용섭(1990). 제사장 나라에 관한 고찰.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19. 정장복(1989).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36.
20. 김호용 편(1999).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히브리서 9: 11-12, 361-362.
21. 김경행(1989). 출애굽기 II. 서울: 성서연구사, 213-214.
22. Today's English Version(1995). *Good News Bible*.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01.
23. 생명의 말씀사(2002). 현대인의 성경. 서울: 생명의 말씀사, 이집트 탈출기 28: 7, 70.
24. 한영해설성경 편집위원회 권혁달 편(1999). 한영해설성경. 서울: 학원출판공사, 민수기 10: 14-28, 212.
25. Walton, John H., Matthews, Victor H. and Chavalas, Mark W.(1997).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Old Testament*. Madison: Inter Varsity Press, 109.
26. 한의택(1989). 성막의 계시.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151.
27. Buruma, A.(1999). *Fashions of the Past*. London: Collins and Brown, 20.
28. Haldeman, I. M.(1925). *The Tabernacle Priesthood and Offering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280(이종수(1999). 광야의 성막. 서울: 기독교문사, 193에서 인용).
29. 조신현(1985). 구약성서에 나타난 복식과 그 상징성.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27.
30. 지병구(1997). 성막과 구속사. 서울: 새한기획출

- 판부, 376.
31. 류형기(1965). 성서주해 vol. I.. 서울: 감리회 총신원, 322.
  32. 최규복(1977).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의 제복에 관한 연구. 의상학연구, 4, 172.
  33. 박찬부(1986). 구약성서에 나타난 히브리인의 복식 - 두식, 신발 및 장신구 중심으로-. 복식, 10, 70.
  34. 민동원(1993). 히브리 제사장 복식의 상징성 연구. 신구전문대학 논문집, 12, 423.
  35. Needham, George C. *Shadow and Substance*, 박영호 역(1994). 성막에 나타난 예표와 실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66.
  36. Thompson, Frank Charles(Comp. and Ed.)(1988). *The Thompson Chain-Reference Bible*. KJV. Indianapolis: The B.B.Kirkbride Bible Company, Inc., 97.
  37. 김진구(1989). 성서에 나타나는 의복장식에 관한 연구(I). 한국생활과학연구, 7, 215.
  38. 오춘자·박길순(1987). 성서를 통해서 본 의복의 상징적 의미. 충남과학연구지, 14(2), 99.
  39. Metzger, Bruce M., Murphy, Roland E.(Ed.)(1994).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The New Oxford Annotated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Leviticus 8: 7, 134.
  40. 김 현·유송옥(2001). 구약 성서에 나타난 제사장의 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51(6), 55-59.
  41. 강문호(1999). 성막으로 성경을 말한다. 서울: 한국가능성계발원, 246.
  42. 제자원 기획·편집(1999).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출애굽기 제25-40장. 서울: 성서교재주식회사, 176.
  43. Tobest, 생명의 말씀사(2000). *Scholar Edition. Visual Bible*. 경기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출애굽기 28: 9-14.
  44. Logers, Cleon L.. *The Topical Josephus*. 김정우 역(2000). 요세푸스.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45. Vaughan, Curtis(Ed.)(1993). *The Word The Bible from 26 Translations*. Gulfport: Mathis Publishers, Inc., Exodus 28: 9-12, 147.
  46. Walton, John H., Matthews, Victor H. and Chavalas, Mark W.(1997).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Old Testament*. Madison: Inter Varsity Press, 109.
  47. 셀프성경편찬위원회 편(1990). 셀프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창세기 34: 25-31, 53.
  48. 김의원(2001). 드림바이블. 서울: (주)성서원, 에스겔 3: 9, 1153.
  49. 이동원(1999). 열두 문, 열두 돌. 서울: 나침반社, 188-189.
  50. 쉬운성경 편찬위원회 편(2002). 아가페 쉬운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창세기 48: 16, 78.
  51. Newman, Harold(1999). *An Illustrated Dictionary of Jewelry*.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3.
  52. 슬레밍, C. W.. 김병희·장세학 옮김(1992). 제사장 의복. 서울: 전도출판사, 134-135.
  53. 현대어성경 편찬위원회 편(2001). 개정판 현대어성경. 서울: (주)성서원, 창세기 35:16, 57.
  54. 엠마오 편집부(1997). 인명지명사전. 서울: 엠마오, 143-144.
  55. 강문호(1994). 네줄로 보석을 물리되. 서울: 한국가능성계발원, 123-124.
  56. 정사라(2000). 성경은 생명과학 열두지파가 주는 교훈(상권). 서울: 에스라 말씀사, 168.
  57. Good칼라라이프성경편찬위원회 편(1999). 칼라 Good 라이프성경. 서울: 기독교지혜사(주), 아가 2: 9, 3: 5, 960.

(2003. 6. 30 접수; 2003. 7. 31 채택)